【재경조찬】2016.6.27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2.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할 때 중국의 레버리지율은 통제 가능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음. 현단계에 발생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현상은 구제금융(Bail out)을 타파하는데 유리함. 정부는기업의 레버리지율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출범할 계획임.**
3. **중국인민은행 황이핑(黃益平) : GDP 성장은 대중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함. 단, GDP에만 관심을 모을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중요함. 우리가 추구하는 종국적인 목표는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임.**
4.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투표에서 영국인들이 EU 탈퇴를 선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 하지만 이는 협상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며 미래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기에 시장의 과도한 반응에서 벗어난 냉정한 시각 필요.**
5. **리다오쿠이(李稻葵) : 만일 '급여 증가율이 GDP 성장율을 앞서간다면' 특히 블루칼라 계층의 급여 증가율이 GDP 명목성장율을 앞서가는 추세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1~4월의 데이터를 보면 급여 증가율과 GDP 성장율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반드시 이 현상을 중요시해야 함.**
6. **중국신문망(www.chinanews.com) :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후 영국 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브렉시트 재투표 관련 청원이 진행 중이며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자가 270만명을 넘어섰음. 이번 안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청원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7.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잃기 전까지 유럽연합의 규칙은 여전히 영국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은 이미 영국과 최대한 빨리 브렉시트 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연합성명 발표. 그 어떠한 지연으로도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조속히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해야 함.**
8. **영국 BBC방송 :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유럽연합 해체는 불가피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놓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복잡하고도 긴 협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또한 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 혼란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하는 타격을 입을 것.**
9. **부동산**
10. **신화통신 :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중개기구의 가격조작 행위에 대하여 각 지의 관련부서는 조속히 효율적인 단속조치를 출범하여 허위정보 및 범칙정보를 발표하는 부동산중개기구를 엄벌에 처해야 함. 그래야만 가격조작 행위와 터무니 없는 가격을 근절할 수 있음.**
11. **관점부동산망(www.guandian.cn) : 헝다(恒大) 그룹의 쉬쟈인(许家印) 회장, 헝다(恒大)가 '다원화 + 규모화 + 브랜드화'의 발전전략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기초를 다지고 다원화 발전하는' 17번째 '3년 계획'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발표. 2020년까지 헝다(恒大)의 목표는 자산규모를 3조 이상으로 늘리고 6,000억이상의 부동산 연간 매출액을 실현하는 것임.**
12. **시장**
13. **2016 상파이(商派) 중국 인터넷+ 기술혁신대회가 오는 6월 29~30일 베이징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릴 예정임. 수많은 국내 인터넷 선두업체들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인터넷과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과 발전 촉진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임. 재경조찬 구독자는 초청번호 2930을 근거로 무료로 대회 참가 가능.**
14. **증권시보(證券時報) : 6월 26일, 완커(萬科) A가 발표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주주 쥐성화(鉅盛華) 및 쳰하이(前海) 생명보험은 '완커(萬科)기업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201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왕스(王石), 위량(郁亮) 등 12명 이사 및 감사 해임안을 발의하였음.**
15. **신화통신(新華社) : 6월26일 15시41분, 창정(長征)7호 운반로켓으로 발사한 다용도 우주선의 귀환모듈이 양호한 외관과 상태로 둥펑(東風) 착륙장의 서남방향 고비사막 구역에 안전하게 착륙.** 향후 차세대 유인 우주선의 논증·설계 및 핵심기술 공략을 위하여 중요한 기반 마련.
16. **우버(UBER) CEO : 중국정부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기업들의 혁신에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인터넷+"는 전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산업의 혁신과 구조전환에 기여할 것임. 5년 후의 중국 특히 베이징에 실리콘 벨리를 초월하는 창업 환경이 조성될 것임.**
17. **我的鋼鐵(mysteel.com) : 지난주 중국 강철현물종합지수는 주간 0.82% 하락한 87.59포인트로 거래 마감.** 현단계 강철 현물 가격은 파동·약세 분위기이고 시장 거래가 부진함. 단, 현재 재고량이 적은 편이므로 강철 가격이 하락할 공간은 크지 않음.
18. **21세기(21世紀) :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은 공급체인금융에 응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하여** 상업은행, 핵심 기업과 팩터링회사를 블록체인에 편입시켜 블록체인 그물형 구조의 중추점으로 하고 공급체인기업을 둘러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급업체를 블록체인 사용자로 하는 구상을 내놓음.
19.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 6월26일, 바오산강철주식유한공사(寶鋼)와 우한강철주식유한공사(武鋼)는 거래중지 공고를 통해 각각 지배주주인 바오강(寶鋼)그룹과 우강(武鋼)그룹으로 부터 바오강그룹과 우강그룹이 전략적 구조조정을 계획 중에 있고 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방안이 확정된 후 관련 주관부서의 인허가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
20. **증권시보(證券時報) :** 장팡유(張房有) 광저우자동차그룹(廣汽集團) 회장은 26일 **광저우자동차그룹 신에너지 무인자동차 개발은 단계별 추진 방식을 취하여 이미 무인운행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완성하였다고 밝힘.** 2020년 신에너지 차종은 20여가지에 달할 것임.
21. **증시**
22.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4일 **상하이·선전 증시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35.16조위안으로 주간 0.7% 감소.** 양 증시의 평균주가는 9.73위안으로 주간 1.12% 감소. 상하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104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14.09이며, 선전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780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38.82임.
23. **국제**
24. **일본 요리우미신문 ：** 모 익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면, 글로벌 증시가 대폭 하락하거나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기존의 5조엔에서 10조엔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임.** 일본 중앙은행은 진일보의 통화자극 조치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예정.
25. **외환**
26. **지난주 금요일, 중국 위안화(CNY) 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은 0.56% 하락한 6.6148에 거래를 마감하였으며 주간 0.36% 하락. 위안화 기준환율은 0.18% 하락한 6.5776을 기록했고, 주간 0.03% 상승.**
27.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 :** **향후 위안화 환율제도는 시장경제의 보다 높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화는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단계와 어울려야 함. 다음 단계의 위안화 환율제도는 시장경제의 보다 높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즉 보다 융통적이어야 함.
28. **석유**
29.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8월 선물 가격은 4.93% 하락한 배럴당 47.64달러를 기록했고, 주간 0.7% 하락.** **ICE 브런트 원유의 8월 선물 가격은 4.91% 하락한 배럴당 48.41달러를 기록했고, 주간 1.54% 하락. 업계에서는 영국과 유럽의 열악한 경제형세가 원유 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경제권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